

# 원도심 활성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순항’

관공서·주거 등 역사문화자원 밀집  
작년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새단장  
주민과 상생 프로그램 등 개발

목포시가 원도심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목포 원도심은 조선시대 목포진부터 근대의 관공서·주거·상업시설 등 역사문화자원이 밀집해 있다. 노동 운동, 소작쟁의, 항일운동 등 일제강점기 당시 민중의 저항이 펼쳐진 공간이자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켜가 쌓여 있어 ‘지붕없는 박물관’으로도 불린다.

특히 3대항 6대도시로 번성했던 근대 목포를 엿볼 수 있는 격자형 도로를 비롯해 구)목포일본영사관, 구)동양척식주식회사, 구)호남은행, 경동성당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근대건축물이 많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



목포시 원도심일대 (구)일본영사관앞 국도1·2호선 기점 /목포시

업은 근대건축자산을 보수·정비해 역사성을 보존하는 한편 전시·체험·창업공간으로 활용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유달·만호동 일대의 가로경관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계획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돼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된다.

시는 원도심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에는 구)호남은행 목포지점을 목포의 멋과 예술적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으로 재탄생시켰다. 또 구)일본영사관앞 국도 1·2호선 기점공간을 정비하고, 민어거리쉼터 등을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해 도보 여행의 여건을 개선했다.

사업은 2023년도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구)대광전자 상가와 구)야마하 선외기 창고 건물을 보수하는 한편 갑자목 모자점~목포천마사 구간 전선 지중화, 골목길 가로경관 정비, 경관조명 설치 등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펼친다.

시는 원도심이 주민들이 거주하는 삶의 현장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단순히 건물 입면·간판 등 외관을 수리하는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해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 보수, 가로경관 정비, 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에 두고 근대역사도시로서의 목포만의 특색을 부각하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metroseoul.co.kr

## ▶ 지역 이모저모

### 곡성군 딸기, 말레이시아 첫 수출

곡성군이 농업회사법인 곡성멜론(주) 공동 선별장에서 ‘맘爰담은 딸기’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대만, 싱가포르 시장에 곡성멜론을 수출한 데 이어 곡성딸기를 말레이시아 시장에 선보인다. 이를 통해 해외시장 다변화에 적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봄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말레이시아 딸기 수출을 위해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과 연계하여 수출전문업체 발굴, 수출단가, 포장재 규격 등을 사전에 긴밀히 협의했다. 또한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지원으로 수출 딸기 선도유지 설비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산화염소, 이산화탄소 훈증에 의한 부패율 경감 기술을 활용해 수출 시 흔히 발생하는 물려짐과 부패에 대한 단점을 보완했다.

/곡성(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 부실시공 ‘부산 정관아쿠아드림파크’

## 기장군의회 “엄정 감사”

설계·시공 과정서 63건 오류 발생  
연간 41억 손실… 대책 마련 촉구

부산 기장군의회는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침수사고와 관련해 조기 개장을 강행한 기장군을 비판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정관아쿠아드림파크는 군비 523억원이 투입돼 만들어진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수영장으로, 지난해 6월 30일 정식개장을 했으나 두 달 만에 지하 기계실과 전기실에 80cm 가량 침수되는 사고로 현재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군의회는 지난해 9월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결의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의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공의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의회 박우식 의장은 “최근 기장군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자문용역을 통해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63건의 오류가 발생한 것이 드러났다”라며 “이는 조기 개장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예산을 졸속 편성하고 공사 관리를 부



실하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장은 “구체적 손실내역을 따져보면 국·시비 보조금 미지원에 따른 군비 손실액 84억원을 포함해 약 172억원에 달한다”며 “향후 침수된 전자장비, 기계 교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4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맹승자 부의장도 “아쿠아드림파크를 짓는 과정에서 정부가 실내수영장 레인을 22개에서 7개로 줄이라고 권고했지만 군은 되려 27개로 더 늘려 지었다”며 “두 달 만에 침수돼 운영도 못하고 수리비만 더 늘어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완도군, 외국인 근로자 올해 첫 입국

#### 일손 부족 현상 해결

완도군에서는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11일 올해 처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99명이 입국해 44개 아가에 배치됐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완도군과 업무 협약을 맺은 필리핀 필라주 출신으로 입국 당일 마야 검사와 고용주 교육을 실시한 후 완도읍과 금일읍, 노화읍 등 9개 읍면에 배치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5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완도군에서는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전남

도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1천여 명을 배정받았다.

군에서는 여러 나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해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수요 시기애 따라 계절근로자를 순차적으로 입국시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적기 입국,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외국인 유학생 계절근로 도입 등을 통해 농어가는 물론 서비스 산업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361명 입국에 완도군 11개 읍면에 배치됐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 남해군

#### 여행사 인센티브 시책 개편

남해군은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관광객 유치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남해군은 지난해 해당 사업을 추진한 결과, 유치 관광객 수를 증대하는 데는 효과를 거뒀지만 관광객의 체류 기간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해부터 당일 코스에 대한 지원금을 없애고 1박 코스의 지원금을 기준 금액에 5000원을 증액, 관광객 1인당 1만 5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 부산항만공사

#### 올 부산항, 80회 이상 크루즈 입항

코로나19로 단단히 닫혔던 부산항의 크루즈 밴길이 3년 만에 열린다. 부산항만공사(BPA)는 2023년 부산항에 80회 이상의 크루즈가 입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 15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제2터미널)로 독일 베나드 술태(Bernhard Schulte)사의 2만 8000톤급 MS Amadea호가 승객 600명을 태우고 동경·나고야 등 일본 6개 항만을 거쳐 입항할 예정이다. 부산항에 첫 크루즈선이 입항하는 것은 2020년 2월 입항 금지 조치 이후 3년만이다.

/부산=김영찬 기자

### 목포시,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1대당 지원액 3500만원

목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2023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승용차 75대의 수소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당 지원액은 3,5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

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돼 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수소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 부산 다중이용시설에 스마트가든 만든다

#### 부산시, 사업비 8억 3000만원 투입

부산시는 올해 사업비 8억 3000만원을 투입해 부산 시내 다중이용시설 등 23곳에 스마트가든을 조성한다.

스마트가든은 실내 공기정화식물과 자동급수 시스템이 결합된 형태로 실내에서도 사계절 정원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원이다. 일상을 실내에서 보내는 시민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심신 치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1년부터 산림청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돼왔다.

조성 대상지는 부산 시내 산단 입주 기업,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며, 올해는 식물 치유 효과가 필요한 교육상담시설, 사회복지시설까지 조성 대상지를 확대해 추진한다.

스마트가든 설치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이 앞으로 5년간 유지·관리하는 조건으로 부산시에 신청서를 제출하



부산시민공원 방문자센터에 조성된 스마트 가든. /부산시

면 시(구군)는 해당 기업(기관)과 협의해 무상으로 스마트가든을 설치·시공해준다. 시는 조성 공간 특성에 따라 벽면형·훈합형·큐브형 등 다양한 형태로 스마트가든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한경대학교 스마트가든 이용 효과성 검증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가든을 조성하면 뇌 혈류량이 2배 이상 (15%) 감소해 피로가 해소되며 혈압이 감소해 신체적 긴장감과 스트레스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3@

### 거제시보건소

#### 만65세 이상 폐렴 무료 예방접종

거제시보건소는 치명적인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고자 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상인 1958년생 어르신 및 1958년생 이전 어르신 가운데 미접종자에 대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만 65세 이상인 경우 평생 1회만 접종하면 되고, 만 65세 이전에 접종한 경우에는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5년 경과 후에 접종이 가능하다.

/거제(경남)=이도식 기자